

碩士學位論文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 추구

指導教授 卞 鐘 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李 明 淑

2001年 8月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 추구

指導教授 卞 鐘 民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1년 4월 일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 李 明 淑



李明淑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1년 7월 일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국문초록>

Toni Morrison의 *Beloved* 연구:
공동체를 통한 정체성 추구

李 明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 鐘 民

Toni Morrison(1931 -)은 작품에서 흑인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특히 정체성 회복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다. 흑인들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흑인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야 하며, 공동체의 온전한 유대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Beloved*(1987)를 통해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흑인 개인들이 공동체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본론의 첫 장에 해당하는 II장에서는 흑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았으며, III장에서는 정체성 회복 과정에서 개인과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끝으로 IV장에서는 공동체 회복이 주는 의미와 미래를 향한 도전들을 살펴보았다.

흑인들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송되어져 혹독한 노예 제도를 경험하였으며, 그 후 남북 전쟁을 통해 노예제가 폐지되었으나 어두운 과도기를 맞이하게 된다. 흑인 공동체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성격을 띄게 된다. 첫째, 흑인 공동체는 정체성을 상실한 흑인 개인들에게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둘째, 흑인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집단적 성격이 강하며 상호 유대가 강조된다. 백인 사회가 개인 중심적 성격이 강한 반면 흑인 사회는 집단 중심적이다. 공동체는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셋째, 흑인 공동체에서는 여성의 역할과 위치

가 강조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흑인 가정은 남성들이 죽거나 떠나버린 상태에서 여성들이 홀로 자녀들을 키우며 가정을 유지한다. 흑인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인간성 형성의 근원이 되는 모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선조의 전통과 역사를 후세에게 전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작품의 인물들은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각각 공동체와 긴밀한 상호작용을 한다. 우선 노예 제도의 첫 경험자인 Mothers는 아프리카의 전통적 문화 유산을 소유한 세대로 후세에게 흑인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전수하며 공동체의 연대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후세들은 Baby Suggs를 비롯하여 Sethe의 어머니와 유모를 통해 자신의 뿌리와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 노예 제도 하에서 태어나 극심한 고통을 받고 남북 전쟁과 노예 해방이라는 과도기까지 경험한 세대인 Sethe와 Paul D는 자아를 상실한 채 점점 파멸적인 삶을 살아가다 과거의 회상과 공동체로의 복귀를 통해 자아를 되찾게 된다. 끝으로 노예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인 Beloved는 Sethe와 Paul D의 과거를 회상시켜 온전한 과거로 자리잡게 한다. Denver 역시 124번지와 이웃 공동체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중매자 역할을 하여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고 나아가 자신의 존재를 깨닫고 미래로 희망을 열어 간다.

한편 흑인들은 자유와 평등의 장소로 상징되는 미국에서 여전히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을 지닌 채 살아가고 있다. Morrison은 *Beloved*를 통해 흑인 조상들의 지혜와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저력을 가르쳐 주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힘은 흑인들을 치료해주고 흑인들이 나아갈 미래의 길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Morrison은 흑인 개인과 공동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을 흑인들의 고유한 역사와 전통적 문화에서 찾고 있으며, 흑인 공동체의 온전한 유대를 그 완성으로 보고 있다.

목 차

I. 서 론	1
II. 흑인 공동체의 특성	8
III. 정체성 추구의 양상	25
1. Mothers: 공동체 문화의 전수자	26
2. Sethe와 Paul D: 해체와 극복의 수난자	32
3. Beloved와 Denver: 연대를 위한 증보자	42
IV. 공동체 구현과 정체성 회복	49
V. 결 론	57
참고문헌	61
Abstract	63

I. 서론

Toni Morrison(1931~)은 미국의 흑인 여류작가로서 199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최초의 흑인 여성이다. 미국은 다양한 인종이 모여 살고 있으나 여전히 백인 주도의 문화적 성격이 강한 나라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300년이 넘게 살아가고 있는 흑인들은 자신들의 존재와 미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스스로 해결하고자 노력해 왔다.

1960년대에 미국 문학계는 흑인 여성 문학의 두드러진 발전을 보인다. Alice Walker, Gloria Naylor, Paule Marshall, Gayl Jones와 같은 현대 흑인 여성 작가들은 흑인 개인의 문제를 넘어 흑인들이 겪었던 왜곡된 역사를 다시 쓰고 그들의 잃어버린 정체성과 뿌리를 찾고자 노력하였고 여성의 존재와 역할을 독자들에게 부각시키고 있다.

흑인 여성 문학은 기존의 남성 흑인작가들과 공통된 측면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남성 흑인문학이 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흑인문학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의 남성 흑인작가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거나 지나쳐버린 흑인사회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흑인의 문제, 나아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깊숙이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이라는 이중적 억압 속에서 정신적, 심리적인 피해와 문제를 자아인식의 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흑인사회라는 공동체와 결부시키려고 노력을 한다. 남성 흑인문학이 백인 사회에서의 인종 차별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백인 사회와의 대항에 많은 관심을 둔 반면에, 흑인 여성 작가들의 관심사는 흑인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개인의 문제만으로 파악하지 않고 나아가 공동체라는 넓은 틀에서 바라본 것이다. 이들은 흑인들의 상호 유대 즉 “공동체로의 복귀(return to community)”¹⁾를 주장하고 있다.

1) Susan Willis, *Specifying: Black Women Writing The American Experience*

Morrison이 작품을 써 나가기 시작한 1970년대는 인종문제가 중요한 사회의 문제로 등장한 시기이다. 그녀는 백인중심의 사회제도와 가치관 속에 내재된 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억압적 양상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그 동안 백인문화에 의해 왜곡되거나 숨겨진 역사적 진실을 글로써 밝혀내고자 노력한 작가이다. “Rootedness: Ancestor as The Foundation”이라는 글에서 흑인들이 온전히 살아남기 위해서는 흑인 역사를 공유하고 지탱해 주는 조상들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하고 있다. 이러한 조상은 개인적 족보의 개념이 아니라 흑인의 오랜 문화 전통과 역사를 후대에 전수해 주고 자신들의 뿌리를 잃지 않게 해주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Morrison은 백인과는 다른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문화를 가진 흑인 문학을 기존의 미국문학 비평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여러 문학 작품들이 흑인문학 전통 안에서 새롭게 그 가치와 기능이 조명되길 바라고 있다.

미국 전통 문학과 비교하여 흑인 문학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우선 전통적으로 미국 문학계에서는 개인과 사회의 대립이 주요한 주제로 등장해 왔다. 하지만 흑인들에게는 개개인이 그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즉 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방황하는 이유는 미국 문학의 등장 인물들처럼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자신의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흑인의 경우 자신이 속한 공동체, 더 작은 단위로는 가족조차 없거나 불안정하기 때문에 항상 공동체를 지향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흑인 문학에는 타락한 도시의 문명을 떠나 자연이나 순수의 세계로 떠나는 순진 무구한 “미국형 아담(American Adam)”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흑인 공동체가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순수를 지키

(Milwaukee: Wisconsin Univ. P., 1987), p. 116.

기 위해 새로운 천국을 찾아온 청교도들의 경험과는 전혀 다른 지옥과 같은 이송 과정과 노예제도라는 집단적 경험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배자들에 의해 자신들이 살아온 고향에서 뿌리뽑혀 이송되어지고 낯선 환경, 사람, 언어, 문화와 대면하도록 강요당했다. 미국으로 운송되는 과정에서는 인간 이하의 취급과 강간, 고문을 당하며 주검을 목격하는 등 참혹한 경험을 겪게 된다. 그러므로 흑인 문학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사회적, 심리적, 역사적, 지리학적 혈통의 중심을 상실한 주변적 인물들이었다.²⁾ 다음으로 주류 미국 문학에서는 유럽 문명의 상징이기도 한 아버지 상을 거부하는 주제가 반복되는 반면, 흑인 문학의 경우에는 백인들에 의해 거세된 흑인들의 부성과 박탈당한 모성의 회복, 더 나아가서는 선조의 뿌리를 되찾는 것이 선행 조건이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흑인 문화에서 자신의 근원을 찾으려는 Morrison은 진정한 흑인의 본질을 구현하고 있으며 흑인들의 목소리로 미국의 주류 문학에 도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부 비평가들은 Morrison의 작품들을 초자연주의적 경험과 세계까지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마술적 사실주의(magical realism)”라는 용어로 묘사하기도 한다. 또한 흑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의 전통을 복원하려는 그녀의 노력을 외면한 채 포스트모더니즘적 기법의 예나 현실 도피적 선정주의로 보려는 시각은 그녀의 작품의 일면만을 보고 평가한 것이다. 여기서 역사적인 현실이 흑인들의 전통과 문화를 기반으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출 때, Morrison이 표현하고자 하는 독특한 흑인들의 세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흑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바라보는 방식을 이해할 때, 초자연적인 세계는 항상 그들의 실생활들의 일부였으며

2) Wilfred D. Samuels and Cleonora Hun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 1990), p. 124.

초자연적인 것이 오히려 사실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Morrison은 자신의 작품을 마술적 사실주의라고 이름 붙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감을 표시하고 있다.

It was a way of not talking about the politics. It was a way of not talking about what in the books. If you could apply the word 'magic' then that dilutes the realism but it seemed legitimate because there were these supernatural and unrealistic things, surreal things, going on in the text. But for literary historians and literary critics it just seemed to be a convenient way to skip again what was the truth in the art of certain writers.³⁾

그녀는 역사적 현실에 바탕을 둔 리얼리즘과 흑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이 녹아든 서정성을 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녀의 여러 작품에서 미국문학의 지배적인 시각에서 제외되고 거부되었던 흑인의 존재를 다시 부각시키고자 노력함으로써 뚜렷한 정치의식을 지닌 작가로 인식된다. 노벨상 수상 위원회에서 크게 거론되었던 두 가지 문제, 즉 Morrison의 문학과 정치 의식 중 어디에 더 비중이 있는가에 대해 그녀는 다음과 같이 양자의 균형을 밝히고 있다.

If anything I do, in the way of writing novels(or whatever I write) isn't about the village or the community or about you, then it is not about anything. I am not interested in indulging myself in some private, closed exercise of my imagination that fulfills only the obligation of my personal dreams . . . the work must be

3) Christina Davis,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Presence Africain* 145(1988): 143-44.

political . . . That's a pejorative term in critical circles now, if a work of art has political influence in it, somehow it's tainted. My feeling is just the opposite : if it has none, it is tainted.

The problem comes when you find language passing off as art. It seems to me that the best art is political and you ought to be able to make it unquestionably political and irrevocably beautiful at the same time⁴⁾

흑인 공동체를 복원하는 과정을 통해 흑인 개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흑인 문학의 중요한 과제라고 보는 Morrison은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 흑인들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고 말한다. 그녀는 역사에서 고통 받고 소외되어져 왔던 흑인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Yes, the reclamation of the history of black people in this country is paramount in its importance because while you can't really blame the conqueror for writing history his own way, you can certainly debate it. There's a great deal of obfuscation and distortion and erasure, so that the presence and the heartbeat black people has been systematically annihilated in many, many ways and the job of recovery is ours.⁵⁾

미국 사회가 기억하기를 꺼릴 뿐 아니라 흑인들 역시 그 아픔 때문에 기억하기를 꺼려 하는 노예제도를 미국문학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은 많지 않다. Morrison에게 1988년 Pulitzer상을 안겨다 준 *Beloved*라는 작품

4) Toni Morrison, "Rootedness: Ancestor as The Foundation," *Black Women Writers(1950-1980): A Critical Evaluation* (New York: Doubleday, Anchor P., 1984), p. 345.

5) Davis, 142.

은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된 후 노예제를 본격적으로 문제삼은 최초의 소설이라는 데 커다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이 작품은 미국 역사와 미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은 그림자로 드리워져 있는 노예제도를 정면으로 대면하여 왜곡되어지고 파괴되어져 버린 흑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회복을 선언하는 기념비적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Morrison의 다섯 번째 소설에 해당하는 *Beloved*(1987)는 Margaret Garner라는 한 흑인 여성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다. Morrison이 출판사인 Random House에서 일하는 동안 흑인들의 역사를 기록한 책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Beloved*의 직접적인 소재를 발견하게 된다. 자신은 노예이지만 자신의 딸마저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 어머니의 사랑이 극단적으로 유아 살해라는 방편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었던 한 흑인 여성의 삶을 다루고 있다.

Morrison은 Margaret Garner의 이야기를 작품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나 단순히 한 여성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작품을 통하여 새로이 창조해 내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즉 노예 신분의 어머니가 취한 모성애의 극단적인 행위를 통해 노예제도에 의해 상실된 흑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의 파괴 과정을 표현하였으며 그들이 어떻게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공동체와 유대를 완성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Beloved*는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124번지는 악의로 가득 차 있었다.(124 was spiteful)”, “124번지는 소란스러웠다.(124 was loud)”, “124번지는 조용했다.(124 was quiet)”라는 문장들로 시작된다. 작품의 배경에 대하여 어떠한 시간적 공간적인 암시도 없이 시작되고 등장 인물들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과거와 현재를 교차시키며 이야기가 전개되어진다.

이 작품은 노예 해방령이 선포되기 14년 전인 1849년에서 남북전쟁이 끝나 9년이 지난 1874년까지를 배경으로 한다. 1885년 Sweet Home이라는

소농장의 노예인 Sethe는 아들 둘과 딸을 먼저 Ohio 강 너머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Cincinnati로 보낸 후, 임신한 몸으로 농장을 탈출하게 된다. Sethe가 Cincinnati에 도착한지 28일이 지난 후 노예 송환법(1850년 제정)에 따라 그녀와 자녀들을 잡으러 온 Schoolteacher와 그 일행이 출현하자, Sethe는 자식들이 노예가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어린 딸 Crawling Already를 죽인다. 이 작품의 현재는 이러한 살인 사건이 있던 지 8년이 지난 후이다. 124번지를 설새 없이 뒤흔들어 놓는 죽은 딸의 유령을 두려워한 두 아들 Howard와 Buglar는 집을 뛰쳐나가고 Sethe의 시어머니인 Baby Suggs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다. Sethe는 탈출 당시 임신했던 마지막 딸인 Denver와 함께 이웃과 고립된 채 살아간다. 과거에 매여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Sethe에게 농장 동료였던 Paul D가 나타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Sethe와 Paul D의 기억을 통해 노예해방 전인 Sweet Home 농장에서의 삶과, 노예해방 후 현재 이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 가고자 하는 Ohio주 Cincinnati의 마을 사람들과의 삶이 병행되며 전개되어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흑인 개인들이 공동체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론의 첫 부분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흑인 공동체가 겪어 온 역사의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흑인 공동체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과 그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그리고 본론의 두 번째 장에서는 작품의 등장 인물들을 역사적 경험 차원에서 각 세대별로 나누어 개인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어떤 상호 작용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공동체 회복이 등장 인물들에게 주는 의미와 작가가 공동체에 대해 어떠한 미래를 전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독자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밝혀보도록 하겠다.

II. 흑인 공동체의 특성

Morrison은 여러 작품을 통해 공동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대를 잘 표현해 내고 있다. 그녀는 흑인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고 공동체와 유대를 이루는 것만이 흑인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는 길이며, 또한 현대의 흑인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Morrison은 공동체에 대한 이와 같은 자신의 생각을 그녀의 여러 작품 속에서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독자들에게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힘썼다. 첫 작품인 *The Bluest Eye*(1970)에서는 흑인 공동체의 전통이 무너져 버린 백인 중심의 이데올로기 중심의 사회환경이 흑인 여성의 정체성 확립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다루고 있다. *Sula*(1973)는 1차 세계 대전과 흑인의 문화적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60년대를 배경으로 끊임 없이 자아를 찾는 흑인 여성 Sula와 백인사회의 인습에 순종하며 사는 Nel을 대조시키고 있다. 여기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온전한 자아를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백인의 인종차별과 편견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지 못하는 흑인 공동체는 와해된 역사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Song of Solomon*(1977)은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채 살아가던 한 흑인 남성이 그들의 선조가 지니고 있던 역사와 전통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60년대 미국의 백인중심 문화와 물질주의에 찌든 한 부유한 흑인가정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 Morrison은 뚜렷한 선조에 대한 믿음과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주인공 Milkman을 자아 발견을 위한 과거로의 여행을 제시하고 자신이 뿌리를 조상을 포함한 공동체에서 찾게 만든다. *Tar baby*(1981)에서는 카리브해안의

한 섬을 배경으로 흑인 문화가 지닌 생명력과 자연성을 백인문화가 지닌 인위성과 물질주의와 대비시키며 흑인과 백인 주인공들을 전형화 시켜가며 보여준다. 여기서는 토속적인 Son과 신교육을 받은 흑인 여성 Jadine 사이에 형성되는 갈등을 보여준다. 작가는 개인의 정체성과 흑인으로서의 정체성 사이의 대립, 여성으로서의 독자적인 삶과 인습적인 삶 사이의 대립, 물질적 가치와 가족적인 가치 사이의 대립 등 여러 갈등 요소를 다루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주인공이 흑인 여성으로서의 삶을 거부한 채 유럽의 파리로 돌아가 버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 실패하게 된다. *Jazz*(1992)는 미국 흑인의 고전 음악인 재즈가 나오기 시작한 20년대를 배경으로 흑인 이주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남부에서 뉴욕으로 이주한 흑인들이 인종차별과 이주 후의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 Morrison은 흑인들만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의 특징과 삶의 저력을 강조하고 있다.

Morrison은 작품 *Beloved*를 시작하면서 로마서 9장 25절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나의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나의 백성이라 부르고, 사랑 받지 못했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 부르리라.(I will call them my people which were not my people; and her beloved, which was not beloved.)”는 이 구절은 Paul이 경멸되고 방랑자였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성서적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백인들에 의해 마치 이방인처럼 고통과 천대를 받고 소외되어 온 흑인들 모두에게 희망과 화합을 전하는 메시지가 된다. 이 구절은 작품에 흐르는 작가적 사상의 모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작가는 아프리카의 전통과 아프리카-아메리칸의 과거를 부활시킴으로써 역사적 단절을 메꾸고, 흑인들이 회피했던 과거를 포용함으로써 흑인 모두가 현실을 인정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화해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다.

Morrison이 전문에서 언급한 백성은 바로 흑인 공동체를 지칭한다. 그녀

는 흑인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전망을 작품 *Beloved*를 통해 잘 표현해내고 있다. 공동체에 대한 견해는 특히 “Rootedness: Ancestor as The Foundation”이라는 수필집에서 찾아 볼 수 있다. Morrison은 조상이란 곁에서 늘 보호해 주고 지혜를 주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인물로, 도시에 서든 시골에서든 그 존재 유무가 주인공들의 행복이나 불행을 결정 짓는다고 지적하며 조상들의 역할과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The presence of ancestor . . . there is always an elder there. And these ancestors are but just parents, they are sort of timeless people whose relationships to the characters are benevolent, instructive, and protective, and they provide a certain kind of wisdom.⁶⁾

작품 *Beloved*에 등장하는 흑인 공동체는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거침으로써 흑인 공동체만의 독특한 특성을 이루게 되었다. Morrison은 *Beloved*를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노예들이 운송되는 과정과 그 이후 미국 대륙에 도착하여 노예제도 하에 비참하게 살해당하고 시체마저 제대로 묻히지 못해 이름도 흔적도 없이 죽어 역사에서 잊혀져 버린 흑인 조상들에게 헌정하고 있음을 작품의 앞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작품의 제목인 “Beloved”라는 이름은 개인적으로 Sethe의 손에 의해 죽은 딸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서문에서도 암시되었듯이 또 다른 차원에서는 비참하게 죽어간 흑인 공동체를 총칭하는 이름이기도 하다. 124번지에 출몰하는 유령은 분노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어 그 유령의 집으로 들어온 Paul D마저도 울고 싶게 만들 정도이다. 그러나 유령의 존재는 Bluestone 街 124번지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Baby Suggs가 말

6) Morrison, p. 343.

하듯이 죽은 흑인들의 슬픔은 흑인들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깊이 스며들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We could move," she suggested once to her mother-in-law.

"What'd be the point?" asked Baby Suggs. "Not a house in the country ain't packed to its rafters with some dead Negro's grief. We lucky this ghost is a baby. 7)

흑인들의 역사에 배여 있는 슬픔은 바로 신분이 불명확한 떠돌이 흑인 소녀 Beloved의 의식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그녀의 경험의 많은 부분은 어렸을 때의 기억 외에 Sethe의 딸로서는 기억이 가능하지 않은 오래 전의 백인에 의한 흑인노예 상선에 대한 기억이 차지하고 있다. Beloved가 자주 언급하는 과거의 기억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어두움”에 관한 것이다. 이는 흑인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신대륙으로의 이송 과정에서 죽은 시체들과 살아있는 사람들이 뒤섞여 쌓여 있으며 시공간의 좌표도 없이 내던져진 흑인들이 느꼈던 정신적 공포를 의미한다. Denver가 Beloved에게 어디서 왔는가를 물었을 때 Beloved는 자신의 기억을 나열한다. 이는 흑인 노예들이 대서양을 건너올 때의 지옥과 같은 경험을 환기시킨다.

Beloved closed her eyes. "In the dark my name is Beloved."

Denver scooted a little closer. "What's it like over there, where you were before? Can you tell me?"

"Dark," said Beloved. "I'm small in that place. I'm like this here."

7)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Plume, 1988), p. 5. 앞으로 본문의 인용은 이 텍스트에 따르며 인용문 말미에 페이지를 명시키로 함.

She raised her head off the bed, lay down on her side and curled up.

Denver covered her lips with her fingers . . . Beloved curled tighter and shook her head. "Hot. Nothing to breathe down there and on room to move in."

"You see anybody?"

"Heaps. A lot of people is down there. Some is dead."(75)

3세기 동안 계속된 노예상업 과정에서 흑인들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출발한 노예 상선에 가득 실려져 긴 항해를 거쳐 신대륙에 도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배 안에 수용된 노예들에게는 움직임 공간조차 허용되지 않는데 이러한 모습은 마치 “비좁은 통조림 안에 갇혀서 피흘리는 정어리들(This cargo that bled, packed like so many live sardines among the immovable objects)”⁸⁾에 비유된다. 노예선상에서 흑인들에게는 나이와 성별에 따라 엄격하게 제한된 공간이 주어졌다. 남자 성인은 6f×1f 4in., 여자 성인에게는 5f 10in.×1f 4in., 흑인 남자아이에게는 5f×1f 2in., 그리고 흑인 여자 아이에게는 4f 6in.×1f 만큼의 공간을 주도록 규정되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⁹⁾ Beloved의 무의식에는 어렸을 때 Sethe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억 뿐 아니라 이러한 이송과정의 기억이 항상 겹쳐서 나타난다. 이는 2부에 나오는 Sethe, Denver, 그리고 Beloved의 독백에서 찾아볼 수 있다.

All of it is now it is always now there will never be a time when I am not crouching and watching others who are crouching too I am always crouching the man on my face is dead his face is not mine his mouth smells sweet

8) Hortense J. Spillers. "Mama's Baby, Papa's Maybe: An American grammar Book," *Diacritics*(Summer 1987): pp.71-72.

9) *Ibid.*, p.70.

but his eyes are locked some who eat nasty themselves I
do not eat the men without skin bring us their morning
water drink we have none at night I cannot see the dead
man on my face daylight comes through the cracks and I
can see his locked eyes (212)

이와 같이 쉽거나 논리적인 연결도 없이 이어지는 Beloved의 독백은 무의식의 흐름으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노예선에 내던져져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은 흑인들의 처참한 모습을 연상케 한다.

새로운 땅에 도착한 흑인들에게는 이 농장 저 농장으로 팔려 다니는 고통스런 노예생활이 계속된다. Beloved가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기억을 표현하는 것을 살펴보면 시간적 공간적으로 뿌리뽑혀 내던져진 흑인들의 심리적 혼란을 잘 읽어낼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농장은 Sweet Home이라 불리는 소농장이다. 여기에 등장하는 농장주 Garner씨는 자신이 소유한 노예들에게 어느 정도 인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것에 대해 매우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이다. 여기서 작가는 백인들은 모두 잔인하고 흑인들은 그 희생자로서 모두 훌륭하다는 이분법적 논리를 더 높은 차원에서 재고시키고자 하고 있다. 즉 공감이 갈 수 있는 친절한 인물들로 그려진 몇몇 백인들은 그러한 그들의 성격 때문에, 작중에서 노예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시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Sethe가 기억하는 Sweet Home 농장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름다움과 두려움이 묘하게 뒤섞인 모순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Although there were not a leaf on that farm that did not
make her want to scream. It rolled itself out before her in
shameless beauty. It never looked as terrible as it was
and it made her wonder if hell was a pretty place too.
Fire and brimstone all right, but hidden in lacy groves . .

. Boys hanging from the most beautiful sycamores in the world. It shamed her remembering the wonderful soughing trees rather than the boys. Try as she might to make it otherwise, the sycamores beat out the children every time and she could not forgive her memory for that (6)

사실 이곳은 Garner씨 생전에는 그다지 억압적인 곳이 아니었다. 자기 노예들을 신사적으로 대해 “man”이라 칭하는 농장주는 노예들에게 충을 소지하도록 권한을 줄 정도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한편 노예 Halle이 5년 동안의 안식일을 포기한 품삯으로 자기 어머니인 Baby Suggs의 자유를 살 수 있도록 허용하기도 하며, Baby Suggs가 Cincinnati에 정착하도록 도와주기까지 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도 노예주의 한 사람으로서 Sethe와 Baby Suggs가 그에 대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감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일관되어 있지는 않다. Baby Suggs가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날 때의 대화 속에 감사와 분노가 서로 뒤섞인 그녀의 묘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

"Anything you need, let us know." said the sister. "We don't hold with slavery. even Garner's kind."

"Tell me. Jenny. You live any better on any place before mine?"

"No, sir." she said. "No place."

"How long was you at Sweet Home?"

"Ten year. I believe."

"Ever you hungry?"

"No Sir."

"Cold?"

"No, Sir."

"Anybody lay a hand on you?"

"No, Sir."

"Did I let Halle by you or not?"

"Yes, Sir. You did."

She said, thinking. But you got my boy and I'm all broke down. You be renting him out to pay for me way after I'm gone to Glory. (145-46)

Garner씨 외에도 공감의 가계 그려진 백인들로는 Sethe가 임신한 몸으로 탈출하는 과정에서 만나게 된 백인 여성 Amy Denver와 북부 노예 폐지론자인 Bodwin씨를 들 수 있다. Amy는 상처입은 Sethe의 몸을 치료해주고 미숙아인 Denver의 산파 역할을 하여 은인이 된다. Sethe처럼 10대 여성으로서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새로운 삶을 찾아 도망치는 상황은 공통적이다. 그러나 18살의 Amy는 자신의 이름을 당당하게 밝히며 벨벳으로 대변되는 물질주의적인 삶, 곧 "미국의 꿈"을 찾아갈 수 있는데 반해, "Lu"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위장하고 도망치는 흑인 노예에 불과한 Sethe에게는 Amy의 꿈은 그야말로 백일몽에 불과한 것이다. Amy는 Sethe를 동정하지만 노예는 무식하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는 백인들의 뿌리 깊은 편견을 서슴없이 드러내 보이고 결국에는 아픈 Sethe를 내버려 두고 혼자 떠나버린다. 한편 Bodwin씨는 많은 노예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지만 심부름 값이나 서비스 값을 지불하기 위해 동전을 넣어두는 뒷문 옆에 세워 놓은 컨테이너를 흑인 소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입을 가득 벌린 채 "At Yo Service"(255)라고 쓰진 모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어쩔 수 없는 백인의 편견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백인들의 태도 때문에 Sethe나 Baby Suggs, Paul D는 자신들의 과거에 대해 종종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Paul D는 Garner씨가 죽고 Schoolteacher가 온 후 겪게 되는 치욕과 같은 경험을 통해 자신들이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믿게 했던 Sweet Home이 "멋진 거짓말(wonderful lie)"이었음을 깨

단계 된다. 그는 Schoolteacher에게 남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을 강제로 빼앗기고 나서야 자신에게 진정한 남성다움을 부여했던 것이 Garner 씨의 선물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의지인지에 대해서 모호해하며 괴로워하게 된다.

1861년에 시작된 미국의 남북전쟁은 노예제도의 폐지라는 성과를 거두기까지 약 5년 간 지속되었다. 이를 통해 4백만에 이르는 흑인들을 해방시켰지만 흑인들의 고통의 역사가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었다. 노예해방 후 10년이라는 재건의 시간과 노력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감으로써 흑인들은 또 하나의 새로운 고통의 시기를 맞게 된다. 전쟁에 패배한 남부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푸는 방법으로 비밀결사를 조직하여 흑인들에 대한 폭력과 살인을 공공연하게 일삼았다. 이때의 흑인들의 참담한 모습을 작품 *Beloved*를 통해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Eighteen seventy-four and whitefolks were still on the loose. Whole towns wiped clean of Negroes; eighty-seven lynchings in one year alone in Kentucky; four colored schools burned to the ground; grown men whipped like children; children whipped like adults; black women raped by the crew; property taken, necks broken. He smelled skin, skin and hot blood. The skin was one thing, but human blood cooked in a lynch fire was a whole other thing. The stench stank. stank up off the pages of the *North Star*, out of the mouths of witnesses, etched in crooked handwriting in letters delivered by hand. Detailed in documents and petitions full of *whereas* and presented to any legal body who'd read it, it stank. (180)

흑인들을 상대로 한 테러와 폭력이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고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은 흑백간의 인종차별이 교묘하게 법률화되어 있었기 때문이

었다. 흑인들은 백인과 같은 버스를 탈 수 없었음은 물론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도 그리고 같은 학교에 다닐 수도 없는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었다. 노예 해방과 재건의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의 흑백차별은 쉽게 뿌리 뽑힐 수 없었고, 오늘날처럼 흑인의 인권을 확립하고 평등의 개념을 이룩하기 위해서 수많은 흑인들은 투쟁해야 했고 지금도 그 과정을 밟고 있다. 흑인들의 인권이 확립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얻어진 것들은 그들이 당연하게 누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던 권리들이었다. 그 동안 그들은 가족의 해체와 공동체의 파괴, 고유한 문화적 전통 등의 근절이라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그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문화는 너무도 오랫동안 무참히 짓밟혀 왔기에 쉽게 정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Morrison은 흑인 가족들이 다시 함께 살기 위해서는 그들 스스로가 정체성을 인식해야 하고 이를 위해 그 동안 묻어 두었던 노예제도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파괴된 흑인 개개의 고통을 나타내고자 노력하고 있다. 흑인들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던 노예제도 하에서는 그것이 아무리 관대하다 할지라도 흑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인간성이나 정체성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위와 같이 아프리카에서 이송되어져 노예제도를 거치고 노예 해방령이 완전히 자리 잡기까지의 재건시대를 보내는 동안 흑인들에게 가해진 신체적 정신적 고통들은 공동체의 와해와 단절, 그리고 개인의 정체성 혼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흑인 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된 지금까지도 커다란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Morrison은 지금의 흑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변화가 아닌 개인의 정체성과 나아가 공동체의 유대를 회복하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흑인 공동체는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흑인 공동체만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된다. 우선 첫째, 흑인 공동체는 흑인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수호하고 전수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orrison의 여러 작품에 나타난 약초를 사용해서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포함하여 구전되어 오던 아프리카의 유산을 작품 속으로 끌어들이는 점, 전설과 민담, 그리고 고유한 노래를 작품 속에서 중요하게 다룬 것은 억압 속에서도 슬픔을 삭이며 승화시킨 흑인들의 의식을 잘 드러내준 요소이다. 그녀는 흑인들의 전통적인 신화와 상상의 세계가 백인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역사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을 작품을 통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다.

Yet she is also concerned with the interaction of history with art, theory, and even fantasy, for, in her term, history itself may be no more than a brutal fantasy, a nightmare half-remembered, in which fact and symbol become indistinguishable.¹⁰⁾

작품 속에는 흑인 공동체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로 Baby Suggs가 등장하는데 그녀는 흑인의 전통과 문화의 수호자인 동시에 전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Like the wise Baby Suggs in beloved—she is also the ancestor figure, the guide through a history that transcends recorded fact, the escapee from slavery, the remnant of Africa, the keeper of racial memory, the teller of tales, often the practitioner of voodoo.¹¹⁾

10) Barbara Hill Rigney, *The Voices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niv. P., 1991), p. 61.

11) *Ibid.*, pp. 66-67.

Baby Suggs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상처 입은 Cincinnati의 흑인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가 된다. Clearing의 종교집회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녀의 모습은 바로 흑인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그들의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고 지키고자 하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Baby Suggs는 흑인들에게 자신의 살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 육체적으로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었던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할 수 있다.

She told them that the only grace they could have was the grace they could imagine. That if they could not see it, they would not have it.

"Here," she said, "In this here place, we flesh; flesh that weeps, laughs; flesh that dances in bare feet in grass. Love it. Love it hard. Yonder they do not love your flesh. They despise it. They don't love the skin in your back. Yonder they flay it. And O my people they do not love your hands. Those they only use, tie, bind, chop off and leave empty. Love your hands! Love them . . . (88)

흑인 고유의 문화와 전통은 지배자인 백인들에 의해 파괴되어지고 비하되어 왔다. 백인들은 흑인 공동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파괴함으로써 흑인들의 신체적 지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Morrison은 이런 시련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거부하고 백인문화로의 귀속을 시도하는 몇몇 인물들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들이 어느 순간은 행복해 보일지라도 결국은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얻지 못하여 쓰러져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을 통하여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사랑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역할을 하

며, 문화와 전통의 수호자인 동시에 전수자인 공동체는 억압적인 노예상황에서 찢기고 상처 입어 더 이상 사랑할 수조차도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애착과 자부심을 갖도록 끊임 없이 격려하고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흑인 공동체가 지니는 두 번째 특징은 집단적 성격이 강하며 상호 유대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흑인 사회는 개인 중심적이기 보다는 집단 중심적이다. 이러한 흑인 사회의 특수성은 노예로서의 노동의 역사 속에서, 흑인들간의 연대만이 온전히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모두가 공유해 왔기에 형성된 집단의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서로 고통스런 과거를 공유하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서로를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치유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집단 중심적 성격과 강한 유대감은 좁게는 하나의 가정에서도 존재한다. Morrison은 집단 중심적 공동체의 구성원을 서구 백인들이 생각하는 핵가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포함하는 확대 가족으로 생각한다. 실제로 작품 *Beloved*를 비롯하여 그녀의 여러 작품에서 이러한 형태의 가족 구성이 이야기의 중심이 된다. 집안의 어른인 할머니 Baby Suggs를 비롯하여 Sethe와 Halle 그리고 그들의 자식들로 삼대가 하나의 가정을 형성된다. 하지만 노예제도 하에서 온전한 가족의 형성이란 매우 어려운 것이어서 뿔뿔이 흩어지거나 파괴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 Paul D가 124번가를 찾아왔을 때 가족 형성의 강한 욕구를 느낀 것은 흑인의 역사를 볼 때 파괴되어진 가족의 회복은 절실한 소망이기 때문이다. 흑인들에게 가족을 통한 유대감과 상호 의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해결의 중요한 단서로 작용한다. Morrison은 백인 문화에서 볼 수 있는 핵가족이라는 형태가 가족 구성원들을 공동체와 고립시키고, 많은 이웃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The nuclear family is a paradigm that just doesn't work. It doesn't work for white people or for black people. Why we are hanging onto it. I don't know. It isolate people into little unit-people need larger unit.¹²⁾

작품을 통하여 볼 때 Sethe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이후 공동체와 점점 멀어져 가는데, 이는 우선 딸을 죽인 것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동은 공동체와의 유대를 끊어버림으로써 그러한 살인을 한 자신을 근본적으로 완전히 파괴하여 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주변 이웃으로부터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차단한 상태에서 124번가는 마치 몰락해 가는 유령의 집을 연상시킨다. 결국에는 자신의 마지막 딸인 Denver가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러 나아감으로써 단절된 흑인 집단과의 연대가 회복되어진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가 되어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악몽과 같은 과거의 기억을 서로 공유하며 쓰다듬어 주고 노래 함으로써 124번가의 유령을 몰아내어 버린다.

They sat on the porch, ran down to the creek, teased the men, hoisted children on their hips or, if they were the children, straddled the ankles of old men who held their little hands while giving them a horsey ride. Baby Suggs laughed and skipped among them, urging more. Mothers, dead now, moved their shoulders to mouth harps. The fence they had leaned on and climbed over was gone. The stump of the butternut had split like a fan. But there they were, young and happy, playing in Baby Suggs' yard, not feeling the envy that surfaced the next day. (258)

Sethe의 구원은 마을 사람들과의 유대 회복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유대

12) Bonnie Angelo, "The Pain of Being Black," *Time* 22 (May 1989), 122.

가 회복되었을 때 Baby Suggs의 마당에서 놀던 젊고 행복한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공동체가 한 때는 Sethe와 그녀의 자식들을 잡으러 온 Schoolteacher가 마을에 나타났을 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Sethe가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백인 노예주가 출현했을 때 왜 알리지 않고 침묵을 지켰는가에 대해서는 그 전에 있었던 마을 잔치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Baby Suggs는 죽음의 갈림길에서 혼자 살아남아 강을 건너온 며느리가 출산 후 한 달이 지나자 마을 사람들을 불러모아 산에서 따온 딸기로 빵을 만들어 잔치를 베풀게 된다. 여기서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으나, 다음날 아침까지 아이들의 손에 파이가 들려 있을 정도로 그 양이 많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가 되었다. 그녀가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무모한 관대함은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신들의 생활에 대한 자아 경멸적 분노를 느끼게 했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약간의 식량만으로도 그 많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이다. 마치 예수가 적은 빵과 물고기로 신의 능력을 발휘하여 많은 백성을 먹인 것과 유사한 것이다. 한낱 노예 출신의 여자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분노한 것이다.

분노는 다시 Baby Suggs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는가에 대한 질서로 이어진다. 그녀가 자신들처럼 노예 신분에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이 노동을 하여 그 대가로 노예라는 신분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시기하게 된 것이다. 이제까지 자신들이 그녀의 설교에서 안식과 위안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에게 충고해 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도망자를 숨겨주며 사랑을 하는 것이 왜 그녀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되었을까를 생각한다. 이와 같이 흑인 공동체는 그 구성원들간의 집단적 성격과 유대감이 강하나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질서도 강하다. 이는 흑인 공동체

의 상반된 성격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서로간의 신뢰와 의지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양면적 성격이라고도 볼 수 있다.

흑인 공동체의 특성 중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여성이 갖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것이다. Morrison의 작품에는 주요 인물로서 남성보다 훨씬 많은 여성들이 등장하고 있다. *Beloved*에서도 마찬가지로 Paul D를 제외한 주요 인물들은 모두가 여성이다. 이는 백인 문학에서 흔히 나타나는 영웅적인 남성이 지배하는 경향과는 매우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Baby Suggs의 가정을 보면 모계 중심의 가족 형태이다.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흑인 가정은 흑인 공동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주로 남성은 억압적인 사회구조 속에서 자유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교육조차 받지 못한 여성이 집에 홀로 남아서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책임지게 된다. Morrison은 작품에서 자주 여성 삼대가 함께 고립되어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배와 항구”로 지칭되는 흑인 여성이 쉼어린 공동체와 가정에서의 이중고를 보여준다.



When we feel that work and the house are mutually exclusive, then we have serious emotional or psychological problems, and we feel oppressed. But if we regard it as just one more thing you do, it's an enhancement. Black women are both ship and safe harbor.¹³⁾

흑인 여성의 출산은 노예주의 재산 증식을 위해 흑인 여성에게 부여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는 노예제 아래에서 흑인 여성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흑인 자녀들이 인간으로서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도 했다. 흑인 사회는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13) Nellie Mckay,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temporary Literature*, 24 (Winter 1983), 413.

이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결속은 흑인 사회의 존속을 유지시켜 주는 길이었다. 그러므로 흑인 어머니에게서 딸로 이어지는 모계 중심의 결속에서 모성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Barbara Christian은 모성의 개념이 흑인 정체성과 본질의 문제에서 무관하지 않으며,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흑인 어머니들의 모성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핵심적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The concept of mother is of central importance in the philosophy of both African and Afro-American peoples, so that the theme has not been ignored; rather it is related to the historical process within which these peoples have been engaged, a process that is an intertwining of tradition, enslavement, and the struggle for their peoples' freedom¹⁴⁾

Morrison은 여성을 자아 정체성을 획득하는데 중요한 원천인 모성을 소유한 동시에 문화와 전통의 전수자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많은 인내와 희망을 가져다준 남성을 제외시키지 않는다. Paul D는 Sethe의 유아 살해에 대해 오해를 하고 한동안 그녀를 절망 속에 빠뜨리지만 결국 그녀의 고통을 나누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데 용기를 준다. 그리고 Paul D의 형제 Six-O는 노예주에 의해 살아있는 채로 불에 타 죽어 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Thirty-Mile-Woman과의 사랑을 노래하고, 그 사랑의 결실인 Seven-O를 외치며 죽어간다. 이러한 요소들은 Morrison이 그리는 이상적인 흑인 공동체는 남녀의 조화로운 삶에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14) Barbara Christia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p. 213.

Ⅲ. 정체성 추구의 양상

주인공들의 무의식을 통해 과거가 조금씩 재현되면서 그 동안 묻어 놓았던 자신들의 고통스런 과거를 직시하게 된다. 그 고통들은 노예제 하의 극단적인 피해의 산물인 Beloved라는 이름을 지닌 한 흑인 소녀의 등장으로 극대화 되는데, 그녀는 어디서 왔는지 확실치 않으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소녀이다. Beloved는 Sethe로 하여금 어렵풋하게 기억하거나 또는 기억하기를 꺼려하는 사건들을 환기시킨다. 아프리카에서 백인들에 의해 이송되고 혹독한 노예제를 경험하였으며 끝내 목매달려 죽임을 당한 자신의 어머니와 조상들에 대한 기억을 불러 일으키고 자신의 고통스런 노예생활의 상처와 딸의 비참한 죽음까지 캐내게 한다. Paul D에게는 노예로서 당했던 치욕스러운 사건들을 환기시키고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한편 나태한 생활 속에 빠져 살던 Denver는 어머니와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점점 파멸되어 가는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웃과 재연대를 시도하게 된다.

Sethe가 잃어버리게 된 모성을 회복하는 과정과 Paul D가 자신의 남성성을 찾아가는 과정, 그리고 Denver가 자신의 존재와 역할을 깨달아 가는 과정은 이들이 서로 관계를 맺어 가는 과정과 연결된다. 즉 이들은 해체되었던 가족을 복원해 가면서 노예제 하에서 박탈 당한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간다. 또한 Sethe와 Paul D의 과거 속에 등장하는 흑인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와 Cincinnati마을에 사는 흑인들의 이야기도 서로 연결되면서 흑인들의 공동체적인 역사가 만들어진다. 결국 작가인 Morrison은 Sethe의 이야기를 통해 작게는 가족 그리고 크게는 흑인 공동체를 통한 개인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Morrison은 이 작품을 통하여 흑인들의 상처 받은 과거를 폭로하는 것

만이 아니라, 그것을 현재로 끌어 내어 흑인 스스로 치유하는 과정을 거치고 파괴되었던 공동체의 존재와 문화를 회복시켜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다른 작품들과 달리 흑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하나의 이야기 속에 담아내고 있으며 개인과 공동체와의 재연대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1. Mothers: 공동체 문화의 전수자

*Beloved*에는 많은 여성이 나오며 어머니로서의 의미와 역할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aby Suggs를 비롯하여 농장에서의 Sethe의 친어머니와 공동 유모의 역할을 한 Nan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이들은 Sethe가 태어나 유아 시기를 거치고 성인이 된 후에도 끊임 없이 그녀의 성장에 영향을 준 인물들이다. 흑인들을 물건으로 전락시킨 노예제는 흑인 여성에게는 이중적인 고통을 가했다. 노동의 인력이라는 점에서 흑인 남성들과 같이 혹독한 매를 맞았을 뿐 아니라 재생산의 기능 또한 강요당하였다. 그들의 여성성은 이미 박탈당한 상태에서 흑인 여성들은 모성 역시 언제든 지 빼앗길 수 있다는 위협에 처해 있었다. 흑인 여성들은 성적 관계의 대상은 되었을지언정, 여성이나 어머니로서의 자격은 박탈당했기 때문에 재산을 배가하는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모두 예외 없이 재산을 배가하는 물건과 같은 취급을 당하였고 그 대표적인 예가 Baby Suggs이다.

. . . because in all Baby's life, as well as Sethe's own, men and women were moved around like checkers. Anybody Baby Suggs knew, let alone loved, who hadn't run off or been hanged, got rented out, loaned out, bought up, brought back, stored up, mortgaged, won, stolen, or seized. So Baby's eight children had six fathers. What she called the nastiness of life was the shock she received upon learning that nobody stopped playing checkers just because the pieces included her children.(23)

어머니의 권한이 박탈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왜곡된 형태로나마 모성은 존재하였으며, 아이들은 어머니의 존재를 자신이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출발점으로 삼는다. 작품에서도 모성애가 본능적인 것은 아니며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모성애가 전혀 생기지 않기도 한다. Sethe의 어머니는 흑인 아버지에게서 난 Sethe를 제외하고 모두 바다에 던져서 죽게 만든다. 한편 동네에 살고 있는 여인 Ella도 “흰 털이 난 것들(white hairy things)”이라 부른 백인들에 의해 태어난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모성은 부성보다 훨씬 근절하기 어려운 것이다. 노예제에서 흑인의 부성이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근절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으나 모성은 적어도 생물학적인 관계에서는 지속되었던 것이다. Morrison은 이러한 흑인 어머니들을 “위대한 어머니(Great Mother)”로 표현하고 있으며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지혜를 부여하는 존재로 보여주고 있다.

Much of Morrison's work embodies "a celebration of African archetypes", the Most significant of which is the Great Mother, the giver of both life and wisdom, who is *nommo*, the creative potential and the sacred aspect of

nature itself. But only in freedom can Sethe celebrate her love for the children, her sense of herself as Great Mother: "It felt good. Good and right. I was big . . . and deep and wide and when I stretched out my arms all my children could get in between."¹⁵⁾

흑인 남성들은 사회구조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없으며 흑인 아버지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머니들은 가정 유대의 유일한 끈이 되며 흑인 공동체를 지탱하는 힘과 전통을 전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남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에서 흑인 사회의 고유한 구조 자체에서의 공동체는 항상 여성 중심적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흑인 여성들의 역할과 비중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Barbara Christian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lack women must "rebuild" their culture by restoring the communal heritage of "giving and caring" which fostered survival and resistance . . . healing the disjunction Western culture has exacted between Black people and their community, history, and African ethos.¹⁶⁾

흑인 여성은 공동체에게 베풀고 돌보는 역할을 하며, 나아가 흑인들이 살아 남아 저항할 수 있는 원동력인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재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는 Baby Suggs 만이 아니라 Sethe의 친어머니와 유모인 Nan에게서도 찾아 볼 수 있다. Sethe는 백인들에 의해 강제로 어머니에게서 떼어져 공동 유모이며 불구자인 Nan에게 맡겨 진다. Sethe는 멀리

15) Rigney, pp. 68-69.

16) Barbara Christian, *Black Women Novelists: The Development of a Tradition 1892-1976* (Westport, Conn.: Greenwood P., 1980), p. 170.

서 밀짚모자를 쓰고 굵은 등으로 노동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던 것을 어렴풋하게만 기억을 한다. 그러나 가끔 Sethe에게 젖을 먹이며 아프리카의 노래를 불러주고 아프리카의 풍경에 대해 이야기해 줌으로써 Sethe로 하여금 조상과 전통에 대한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하는 역할을 한다. 유모 Nan도 Sethe를 키우며 흑인들만의 언어를 가르쳐 주고 그들의 춤과 노래에 Sethe를 노출시킴으로써 끊임 없이 흑인들의 문화와 전통을 전수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인다. 이러한 어머니들의 역할은 은연중에 Sethe에게로 이어지게 된다. Sethe는 Denver를 임신했을 때 아기의 움직임이 아프리카의 영양이 초원에서 뛰어오름으로 표현하였고 자식이 조상들과 연계되는 것을 자주 상상하게 된다.

Sethe considered that her unborn baby bucks like an antelope, shadow dancers in her own foggy past and that of her race. Oh but when they sang. And oh but when they danced and sometimes they danced the antelope. The men as well as the ma'ams, one of whom was certainly her own. They shifted shapes and became something other. Some unchained, demanding other whose feet knew her pulse better than she did. Just like this one in her stomach. (31)

한편 Baby Suggs는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Cincinnati의 흑인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Clearing에서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녀는 흑인들에게 흑인인 자신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것을 가르친다. Baby Suggs의 모습에서 바로 흑인 공동체의 조상으로서 그 자손들에게 전통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전수하고자 하는 노력을 볼 수 있다. 그녀는 각 개인의 자신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마을

흑인들 간의 사랑과 화합도 강조하고 있다. Baby Suggs는 마을 사람들이 뼈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온전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화합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내의 두터운 유대를 통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공동체를 지키고 그 전통과 문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어머니들에게도 한계는 있다. 그 예로 Baby Suggs는 Sethe가 딸을 죽이고 난 후 8년 동안 마을 공동체의 설교자로서의 생활은 물론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까지도 모두 포기한 채 오로지 색깔에만 집착하게 된다. 노예제의 혹독한 경험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을 느꼈던 Stamp Paid 는 이러한 Baby Suggs를 보고 그녀가 내면까지 지쳐있음을 알게 된다. 그녀를 지치게 한 것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삶도 아니며, 그 삶에서 자신을 구해준 아들의 죽음도 아니다. 또한 그 아들이 남긴 아이들을 죽이고자 했던 며느리의 행동을 보아야 했던 것도 아니었으며, 흑인 공동체에서 외면 당해야 했던 것도 아니다. 그녀를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던 것은 자신이 흑인 공동체에서 설교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이 자신의 뜰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사실과 Sethe의 거친 선택에 찬성할 수도 저주할 수도 없었다는 데 있다. 그리하여 Sethe의 선택의 근본적인 원인이 노예제도에 있다고 믿고서 자유의 신분이었던 Baby Suggs조차도 8년이라는 세월을 색깔에만 전념하며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다. 결국 그녀를 지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백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Beloved*에 나타난 Mothers는 공동체를 이끌어 주고 다음 세대에게 선조의 전통과 문화를 심어주며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존재가 된다. 이들은 흑인 공동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고 계승시킨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으로서 그리고 백인들에 의해 지배와 착취를 받는 여성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벗어나는데

는 한계를 보인다. 그러나 그녀들이 지닌 위대한 어머니의 의식은 세대를 거듭하여 지속적으로 전수되며, 노예제도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되어지고 상처 입은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뿌리와 영혼의 안식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Sethe와 Paul D: 해체와 극복의 수난자

Garner부부에 의해 운영되어 온 Sweet Home에서 Halle과 가정을 지키며 살던 Sethe는 갑작스런 Garner의 죽음과 Schoolteacher의 입주, 그리고 가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탈출 계획을 세운다. 두 아들과 젓먹이 딸을 Ohio강 너머 Baby Suggs가 살고 있는 Cincinnati로 먼저 보내고 가려는 순간, Schoolteacher의 두 조카에 의해 젓을 빼앗기고 채찍에 맞는다. 이 상황에서 Sethe는 딸에게 주어야 할 젓을 뺏겼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임신한 몸으로 탈출한다. 백인 소녀에 의해 육 개월 된 Denver를 배 안에서 출산하고 Cincinnati로 온 후 28일간의 자유생활을 만끽하던 중, School teacher와 노예잡이가 나타나자 지극한 사랑의 방편으로 딸을 살해하게 된다. 그 후 18년이 지나는 동안 유령의 공포를 못 이겨낸 두 아들은 가출을 하고 Baby Suggs도 죽는다. 124번지에 살고 있는 Sethe와 Denver는 이웃과 왕래 없이 고립되고 소외된 생활을 한다. 그러던 중, Paul D의 방문과 정체를 알 수 없는 Beloved라는 소녀가 등장하면서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Sethe가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는 과정을 보면 Sweet Home이 흑인 노예에게 행복한 가정을 약속해 주는 예외적인 장소가 아니라 그 이름처럼 달콤하게 위장된 망각의 현장임을 인식시킨다.

"I got a tree on my back and a haint in my house, and nothin' in between but the daughter I am holding in my arms. No more running—from nothing. I will never run from another thing on this earth. I took one journey and I paid for the ticket, but let me tell you something, Paul D Garner: it cost too much! Do you hear me? It cost too much. Now sit down and eat with us or leave us be." (15)

Sethe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도망치는 대가가 너무도 컸음을 말하고 비인간적인 Schoolteacher의 행동을 다음과 같이 폭로한다.

He was talking to his pupils and I heard him say, "which one are you doing?" And one of the boys said, "Sethe." That's when I stopped because I heard my name, and then I took a few steps to where I could see what they were doing . . . I heard him say, "No, no. That's not the way. I told you to put her human characteristics on the left; her animal ones on the right. And don't forget to line them up." (193)

이는 Schoolteacher가 Sethe가 직접 만든 잉크를 가지고 그녀의 동물적인 특색과 인간적인 특색을 구분하는 장면이다. 이를 통해 Morrison은 백인들이 육체에 대한 소유와 언어에 대한 권위를 교활하게 연계시키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즉 정의자의 위치에 있는 백인들에 의해 쓰여지는 흑인 노예들의 역사는 바로 되지 않음을 암시하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다.

노예제도의 고통과 Sweet Home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Paul D의 방문 이후 Sethe에게는 첫 번째 변화가 오기 시작한다. 목요일의 축제에서 그와 딸의 그림자에서 얼마간의 균형을 가진 가정의 결속을 이루는 듯해 보인다. Seth는 Paul D를 만남으로써 지나간 고통스런 경험들을 회상하게 되고 자신의 상처 입은 육체와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Paul D를 통해 회복하게 된다. 124번지는 Paul D에 의해 어느 정도 잠잠해지게 된다.

하지만 Paul D에 의해 쫓겨 나서 잠잠해진 아기 유령이 다시 Beloved라는 한 여인의 몸으로 나타나면서 두 번째 변화의 기회를 맞이한다.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Beloved를 처음 발견했을 때 Sethe는 갑작스런 과거의 경

힘을 떠올린다. 주름살도 없이 매끄럽고 싱싱한 피부를 가지고 있으며, 손가락 마디도 새로운 20세 정도의 나이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는다든지,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그 철자들이 만들어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천천히 말한다든지, 오랫동안 걸어왔는데도 새 신발을 신고 있다든지, 머리가 무거워 손으로 늘 떠받치고 있는 등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신비로움을 가졌다. 이러한 신비성은 아기 유령이 육화된 것 같은 의문점을 가중시키고, 결국 Beloved의 유아적 퇴행의 모습들은 Sethe에게 살해된 딸이 돌아온 것이라는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또한 Sethe는 다하지 못한 모성애의 발휘할 기회를 되찾은 것처럼 Beloved에게 빠져들게 된다.

Sethe는 자신의 딸 Beloved를 죽인 이후로 딸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공동체와도 고립된 채 고통스런 생활을 해 왔다. 124번지에서 출몰하는 아기 유령에 대해 강력한 주문을 외워서 쫓자는 Denver의 말에 Sethe는 “내가 딸을 사랑한 것 보다 강하지는 못해.(No more powerful than the way I loved her.)”(4) 라고 답한다. 이것은 유아 살해가 자식에 대한 극단적인 사랑의 표현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에서 자행된 유아 살해는 유령의 출몰보다도 더 강력한 Sethe의 욕구의 표현이며 파괴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 밖에 없었던, 자신의 자아의 한 단면이기도 한 자식을 죽이는 행동은 바로 흑인 노예인 Sethe의 자유가 자신의 신체적, 정신적 자유만이 아니라 자식의 행복까지도 포함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인 사건이 있는 후 Sethe와 마을 사람들의 관계는 매우 주목할 만하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식을 살해한 Sethe의 행동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었으나, 같은 노예제를 겪으며 자식을 구하기 위해 죽어야만 했던 어머니의 사랑과 고통은 이해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죽인 후 차가울 만큼 냉정한 그녀

의 얼굴에서 자신들의 공통 분노로는 이해할 수 없는 느낌을 받고 충격을 받게 된다. 마을 사람들은 Sethe가 나타낸 거만한 자세로 인해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Sethe의 표정에 드러난 오만함과 냉정함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떠한 죄책감이나 후회의 감정을 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위한 공동체의 위안의 노래마저 거부하는 행위로 보여졌기 때문이다. Sethe가 취한 행동의 결과는 Baby Suggs의 장례식장에서 또다시 마을 사람들과 부딪치며 드러난다. 그녀는 124번지로 들어가기를 거부한 마을 사람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동안 너무나도 조용히 서 있음으로써 그 대답을 대신 하였다. 마지막으로 Sethe와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음식에 손도 대지 않음으로써 이제까지 조화롭던 삶을 완벽하게 분리시켜 버리는 계기가 된다. 타락의 원인은 자만에 있다고 생각하는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그 자만으로 인해 Sethe가 곤경에 빠지길 기대하기에까지 이르게 된다. 마을 사람들과 분리된 삶 속에서 Sethe는 18년이라는 시간을 죄책감에 휩싸인 채 자신이 죽인 유령과 살아야 했다. 한 때 정거장처럼 사람들이 오가며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하던 124번지는 이제는 근접해서는 안 될 장소로 바뀌어 버린 것이다.

Beloved는 Sethe에게 지나간 과거를 회상시켜 줌으로써 잊혀지지 않은 채 묻혀진 과거를 바로 세울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존재이다. 즉 고통스런 과거를 억지로 잊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국 평생 Sethe의 목을 조이는 멍에가 되어버린 과거를 제대로 인식시킴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과거의 장으로 보낼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또한 Beloved는 Sethe에게 그 동안 잊혀졌던 어머니와 공동체에 대한 미미한 기억들을 되돌리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지금은 마을 공동체와 결별된 상태이지만 자신이 어렸을 적에 보아온 어머니의 존재와 흑인 공동체의 고유한 전통들을 떠올리며 그에 대한 그리움과 복귀하고자 하는 욕구를 심어준다.

다시 살아있는 육체의 몸으로 나타나 자신이 죽인 딸을 연상케 만드는 Beloved는 끝임 없이 Sethe에게 사랑을 갈구한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마치 어머니의 손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기 유령의 원한을 어머니에게 풀 듯이 Beloved는 Sethe에 파괴적일 정도로 사랑을 요구하게 된다. Beloved에 의해 점점 탈진되어 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Denver는 어머니를 구해내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처음으로 요청하게 된다. Sethe는 마을 여성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 찾는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노래와 함께 124번지에 맴돌던 Beloved는 그 곳을 떠나게 된다. 한편 Sethe는 Denver에게 일자리를 구해 주러 찾아 온 Bodwin의 모자를 보는 순간에 Schoolteacher가 또 자신과 아이들을 잡으러 온 줄 알고 송곳을 들고 공격하려고 한다. 이러한 Sethe의 변화된 모습에서 자식을 노예로 내어 줄 수 없어 자식을 살해하는 비참한 일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심을 볼 수 있다.

결국 Sethe를 치료한 것은 Paul D가 아픈 노예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과 가족 형성에 대한 계기를 마련해 준 것에서 시작된다. 한편 육화된 Beloved는 Sethe에게 과거의 불충분한 기억을 회상 시킴으로써 완전한 과거를 소유하게 하여 현재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여지를 주었다.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다시 불러일으켰으며 결국에 가서는 Sethe로 하여금 다시 공동체로 복귀하도록 도와주고 18년 간 무심했던 마을 공동체가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Paul D는 Garner씨가 죽고 Schoolteacher가 온 후 겪게 되는 치욕과 갈등 속에서 자신들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서 믿게 했던 Sweet Home이 얼마나 가식적 장소였는가를 깨닫게 된다. 그는 Schoolteacher에게 남성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을 빼앗기고 온갖 고통을 받게 된다.

Sweet Home을 탈출한 후에 오랫동안 탈출의 원인을 강압적인 새 백인의 행동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탈출 과정에서 겪게 되는 뼈저린 노예제도의 실상을 통해 자신들이 인간으로 취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Sweet Home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도 주인이 허락할 때만 좌우되는 것이며, 이제껏 자신들은 그러한 거짓말에 고립되어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Nobody counted on Garner dying. Nobody thought he could. How 'bout that? Everything rested on Garner being alive. Without his life each of theirs fell to pieces. Now ain't that slavery or what is it? (220)

흑인들을 그나마 인간으로 대접해 준 Garner가 자기 농장 노예의 이름을 Paul A, Paul D, Paul F라고 지었다는 사실은 그도 역시 백인 주인으로서의 힘을 구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이처럼 힘을 가진 주인과 그 힘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흑인들이 진정으로 자신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Garner의 특별한 노예관리 방식조차 흑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노예제도 안에서 행해진 것이며, 이는 Schoolteacher가 흑인들을 동물이나 물건쯤으로 취급하는 것과 정도만 다르지 그 근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Sweet Home의 흑인들 자신이 인간이 아닌 온전한 생산 도구로서의 가치로 깨닫게 된 것은 Garner 시절이 지나고 새 주인으로 Schoolteacher가 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때까지는 흑인들의 불안 속에서도 그나마 존재했던 자아 정체성의 가능성조차 이제는 완전히 파괴된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교사가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들과 무언가를 열심히 적던 공책이 자신들의 동물적 특성을 기록하기 위한 것임을 눈치챘을 때 시작된다. Sethe가 Denver에게 “Sixo는

찢어졌지.”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그가 Schoolteacher에게 맞아서 부상당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공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에게 던졌던 질문들이 근본적으로 흑인들의 동물성 조사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Sixo의 인간성을 다치게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⁷⁾

흑인 남성들은 노예제도 하에서 신체적 고통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남성성과 부성을 거세당하였다. 자신의 부인을 백인 주인에게 빼앗겨도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로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Stamp Paid가 자신의 자아는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여겨 Joshua라는 이름을 버리고 Stamp Paid라고 바꾼 것이 그 한 예이다. Paul D도 Schoolteacher에 의해 남성성의 상징인 충을 빼앗기게 되고 18년 간의 떠돌이 생활과 Alfred 감옥의 비인간적인 대우를 통해 자신의 남성성과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한편 그의 형제인 Sixo는 사랑하는 여인이 자신의 아들을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지자 살아있는 채로 화형을 당하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Sethe의 남편인 Halle도 자신의 아내가 젖을 빼앗기는 광경을 보고 결국에는 미쳐 버린다. Paul D는 이러한 형제와 이웃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과정에서 미쳐버리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들을 지켜보며 괴로워한다.

Paul D가 자신이 노예로서, 처음으로 인간 이하의 존재 밖에 되지 않는다고 수치심을 느낀 것은 수탉 Mister와 대면한 때이다. 그는 자신을 닭만도 못하다고 느끼게 된다. 자유롭고 힘이 세어 보이는 한 마리의 수탉을 보며 노예라는 신분에 묶여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감과 Sweet Home의 마지막 생존 남성으로서 가족과 동료들이 처절하게 흩어지고 죽어 가는 모습을 보아야만 하는데서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 것이다.

17) Davis Lawrence, "Fleshly Ghosts and Ghostly Flesh: The Word and The Body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9/2(1991), 189.

Yeah, he was hateful all right. Bloody too, and evil. crooked feet flapping Comb as big as my hand and some kind of red. He sat right there on the tub looking at me . . . The last of the Sweet Home men . . . Mister, he looked so . . . free. Better than me. Strong, tougher. Mister was allowed to be and stay what he was. But I wasn't allowed to be and stay what I was. Even if you cooked him you'd be cooking rooster named Mister. But wasn't no way I'd ever be Paul D again, living or dead. (72)

그러나 Paul D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탈출 과정에서 붙잡혀 Alfred 감옥에 수감되면서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단결하면 살고 흩어지면 모두 죽는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이는 고난의 순간에 흑인들이 서로 단결하는 것만이 생존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는 것이라 볼 수 있다.

Some lost direction and their neighbors, feeling the confused pull of the chain, snatched them around. For one lost, all lost. The chain that held them would save all or none, and Hi Man was the Delivery. They talked through that chain like Sam Morse and, Great God, they all came up. Like the unshriven dead, zombies on the loose, holding the chains in their hands, they trusted the rain and the dark, yes, but mostly Hi Man and each other. (110)

Paul D는 Alfred 감옥을 탈출하면서 흑인들이 당하는 고난을 결코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공동체간의 “단결”의 필요성은 Baby Suggs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Nobody could make it alone. Not only because trappers

picked them off like buzzards or netted them like rabbits, but also because you couldn't run if you didn't know how to go. You could be lost forever, if there wasn't nobody to show you the way" (135)

Paul D는 124번가에 나타나 그 곳을 지배하던 유령의 존재를 내쫓고 Sethe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를 치유 받게 도와준다. 또한 Sethe와 Denver로 하여금 가족 형성의 욕구를 북돋아 주는 역할을 한다. 그도 또한 Sethe를 만남으로써 “머리의 닫혀 있었던 부분(closed portion of his head)”(41)이 기름을 칠한 자물쇠처럼 열리게 된다. 이는 그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과정으로 18년 만에 재회한 Sethe와 과거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아픔을 위로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Paul D도 처음에는 Sethe가 딸을 살인했다는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어 Sethe를 비난하며 그녀의 곁을 떠나기도 한다. 자신도 노예제도를 통해 고통스런 경험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한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잃어버린 존재이다. 그와 유사한 경험을 거치며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자아를 잃어버리고 과거의 기억에 매여 괴로워하는 Sethe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Paul D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육화된 Beloved를 통해 과거의 지옥 같은 경험을 회상하고 바로 인식함으로써 차차 자신의 자아와 남성성을 되찾게 된다. 여기서 힘을 얻은 그는 나아가 같은 일원이며 경험을 공유한 Sethe의 아픔을 치료하는데 그 힘을 쓰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공동체가 지니는 상호 치유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오히려 같은 경험과 역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들의 상처를 가장 잘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3. Beloved와 Denver: 연대를 위한 증보자

이 소설의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많다. 우선 Sethe가 죽인 딸의 묘비명이고 동시에 간혀 지내다 탈출한 한 흑인 소녀의 이름이기도 하다. 한편 그녀의 기억들을 보면 마치 아프리카에서 직접 노예선을 타고 온 흑인 노예 소녀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육화된 Beloved는 어느 날 Sethe에게 Sethe가 과거에 어린 딸에게 보여주었던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질문하여 Sethe로 하여금 자신의 딸이 되살아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또한 예전에 자신의 아이들에게만 불러주었던 노래를 Beloved가 중얼거렸을 때는 자신의 딸임을 확신하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된다.

Beloved, she my daughter. she mine. she come back to me of her own will and I don't have to explain a thing. I didn't have time to explain before because it had to be done quick. (200)

하지만 Stemp Paid의 말과 그녀의 고운 피부, 그리고 새 신발과 옷을 지니고 있는 사실들을 통해 그녀가 백인들에 의해 간혀 지낸 흑인 소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러나 Denver의 대화와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내뱉는 기억들을 통해 작품의 서두에 나온 흑인 노예로서 미국에 끌려 온 “육백만 이상(Sixty Million and More)” 중의 한 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능케 한다. 한편 Sethe가 Beloved에게 “비러브드. 너는 나의 얼굴이야. 너는 바로 나야.(Beloved. You are my face; you are me)”(216)라고 말한 표현에서 Beloved의 진정한 실체는 나아가 억압과 노동 속에서 침묵했던 흑인 여성 전체를 대표 한다고 볼 수 있다.

Sethe는 자신이 죽인 딸 Beloved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으로 하루 하루를 살고 있는 여성이다. “Beloved”라는 글귀를 장례식 설교에서 듣고, 자신의 몸을 팔아 석공으로 하여금 딸의 묘비에 그 글자를 새기게 하였으며, 그것도 모자라 Dearly라는 글자를 새기지 못한 것에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던 Sethe에게 Beloved가 나타나자 그녀는 온 정성을 기울여 자신의 행위를 설명하고 딸에게 다하지 못했던 의무에 충실하고자 한다. Sethe는 왜 자신이 Beloved를 죽여야 했는지에 대한 대답을 한다.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녀는 끔찍한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시 해야만 했다.

육화된 Beloved는 Sethe로 하여금 자신의 암울한 과거를 떠올려 다시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Sethe는 이를 통해 그녀가 그동안 잊고 지낸 친어머니와 흑인 유모인 Nan, 그리고 시어머니 Baby Suggs와 남편 Halle, 자신의 젖을 빼앗아가고 채찍질한 Schoolteacher와 같은 과거의 인물들과 사건들을 기억하게 된다. 이러한 회상의 과정을 통해 Sethe는 어둠 속에 묻어 두었던 말 못할 아픈 상처와 경험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며 차차 자신의 마음을 외부로 향해 열어가기 시작한다. 또한 Sethe는 Beloved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에 충실해지는 그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s she began telling about the earrings, she found herself wanting to, liking it. Perhaps it was Beloved's distance from the events itself, or her thirst for hearing it—in any case it was an unexpected pleasure. (58)

이렇게 Beloved는 Sethe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만 파괴적일 만큼 소

유욕이 강한 사랑을 요구함으로써 Sethe를 구속하고 파괴하는 부정적인 역할도 한다. 오로지 Beloved만을 생각하는 Sethe는 직장인 식당에 점점 늦게 출근하다가 급기야 직장을 그만 두고 집안에만 머물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된다. 자신만을 생각해 달라는 Beloved의 유아적인 욕구를 채우려는 Sethe와, 그럴수록 점점 더 Sethe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Beloved의 관계는 더욱 더 파멸적인 상황으로 치닫고 Denver는 이 둘을 구분하기조차 힘들게 된다. 이러한 파괴적이고 구속적인 Beloved의 행동으로 124번지는 더욱 철저히 고립된다. 그래서 Stamp Paid가 124번지를 방문했을 때 124번지는 시끄럽고,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내 것(Mine)”이라는 단어 뿐이다. 점점 파멸되어 가는 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는 딸 Denver는 Beloved로부터 어머니를 구출해 내기 위해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 여기서 Beloved는 비록 Sethe를 점점 파괴해 가나 그러한 행동을 통해 Denver와 이웃 공동체로 하여금 Sethe를 돕도록 유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Beloved는 Sethe에게 해악을 끼치면서도 그녀가 진정한 자아와 과거를 회복하고 이웃 공동체와의 단절된 유대를 되살리며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존재인 것이다.

또한 Beloved는 Paul D로 하여금 잃어버린 자아를 되찾는데 도움을 준다. 그는 충을 빼앗기고 입에 재갈이 물려지기도 했으며 Alfred 감옥생활과 떠돌이 생활을 통하여 무기력한 남성으로 살아 간다. 그러한 과거의 짐들을 그의 마음속 깊은 곳인 “담뱃갑(tobacco tin)”(113)에 숨겨 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는 불타는 붉은 심장을 상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세상의 아무 것도 그의 담뱃갑을 열지 못할 것이라고 다짐한다. 그러나 그 담뱃갑은 이상하게도 Beloved와의 만남,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불러 주고 성적 관계를 가질 때 비로소 열리게 된다.

"Call me my name."

"No."

"Please call it. I'll go if you call it."

"Beloved." He said it, but she did not go. She closer with a footfall he didn't hear and he didn't hear the whisper that the flakes of rust made either as they fell away from the seams of his tobacco tin. So when the lid gave he didn't know it. What he knew was that when he reached the inside part he was saying, "Red heart. Red heart," over and over again. Softly and then si loud it woke Denver, then Paul D himself. "Red heart. Red heart. Red heart." (117)

이 장면에서 Beloved는 자신의 이름을 불러 달라고 Paul D에게 요구하는데, 이는 흑인 여성을 대표하는 그녀가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유령이 극도의 정신적 갈등 속에 있는 Paul D를 치유하는 과정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마치 원혼이 담뱃갑에 저주를 퍼부었다가 자신의 한을 삭이고 혼을 달래는 Paul D의 말에 그 저주를 풀어 준 것 같은 결과가 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일을 계기로 Paul D의 어둡고 폐쇄된 과거가 미래를 향해 열리게 된다.

여기서 Paul D와 Beloved와의 관계는 육체적인 차원을 넘어서 정신적인 교류까지 상징하고 있다. 즉 Paul D는 그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잊어버리고자 했던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다. 또한 자신이 수탈인 Mister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으나 Beloved와의 성관계를 통해 그의 상처 입은 붉은 심장을 복원하게 된다. 이는 자신의 정열을 잃어 버리고 살아가는 Paul D의 모습만이 아니라 노예 제도 하에서 흑인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흑인 공동체의 모습으로 확대된다. 이와 같이 Beloved는 124번지의 흑인 공동체로 하여금 18년 전에 Sethe를 위해 해야 했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흑인 공동체와 분리된 124번지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다 하고 나서 자신은 마을에서 사라져 버린다. Beloved는 자신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노예제도의 해악을 이웃들에게 일깨우고 자신의 행위를 보고 공동체가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하도록 촉매의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한편 Denver는 Ohio강가에서 백인 여성인 Amy Denver의 도움을 받고 태어난 Sethe의 마지막 남은 딸이다. Ohio강은 북부와 남부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곳에서 그녀가 태어났다는 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그녀의 출생이 흑인 여성과 백인 여성의 협동 속에서 이루어진 점은 Denver가 백인과 흑인, 북부와 남부, 나아가 과거와 미래를 화해시키는 의미를 가진 인물이라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그러나 Sethe는 노예제도 하에서의 자신의 과거 경험을 모두 숨김으로써 Denver로 하여금 공동체와 고립시켜 버린다. 즉 Denver는 외부 세계에 대한 관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만 관심을 가진 채 흑인 공동체 및 역사적 현실로부터 차단되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다. Denver는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어머니가 살인범이냐고 묻는 친구인 Nelson Lord의 말에 그녀의 귀를 닫고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끊어 버린다.

It was Nelson Lord . . . who put a stop to it: Who asked her the question about her mother that put chalk, the little I and all the rest that afternoon held, out of reach forever. (102)

Denver는 “나는 최선을 다 해 어머니를 사랑했어. 그래서 그녀는 날 죽이지 않을거야.(I spent all of my outside self loving Ma’am so she

wouldn't kill me, loving her even when she braided my head at night.)” (207)라는 말을 통해 어머니가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공포 속에서 생활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Beloved가 자신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에 대해 애착을 느끼며 지내게 된다. 하지만 육화된 Beloved가 자신의 마지막 혈육인 어머니를 죽음에까지 몰아 넣으려고 하자 어머니를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Denver는 처음에 굶주림에 시달리는 어머니를 위해 음식으로 도움을 받으며 어머니를 구하기 시작한다. Denver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 밖으로 나오면서 Lady Jones를 만나 도움을 받고 공동체에 속한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깨닫기 시작한다. 그리고 어머니의 살인 행위를 다시 들음으로써 어머니가 왜 언니를 죽여야만 했는가와 자신을 과거와 떼어 놓으려는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된다.

Leave before Sethe could make her realize that worse than that—far—worse—was what Baby Suggs died of, what Ella knew, what Stamp saw and what made Paul D tremble. Not just work, kill, or maim you, but dirty you. Dirty you so bad you couldn't like yourself anymore. Dirty you so bad you forgot who you were and couldn't think it up. And though she and others lived through and got over it, she could never let it happen to her own. The best thing she was, was her children. Whites might dirty her alright, but not her best thing, her beautiful, magical best thing—the part of her that was clean . . . (251)

Denver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로 말해야 함을 느낀다. 이제 Sethe의 이야기는 흑인 여성인 딸 Denver의 이야기로 이어지며 나아가 공동체의 이야기로 발전해 간다. 마을 여인

들은 이러한 Sethe의 이야기에 응답하게 되는데 이는 Sethe의 숨겨졌던 과거의 이야기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Denver가 124번지의 상황을 인식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공동체로 나아가야 할 사람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은 이전에 할머니 Baby Suggs와 나누었던 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But you said there was no defense.

"There ain't."

"Then what do I do?"

"Know it, and go on out the yard. Go on." (244)

이 글에서 "It"는 역사적인 삶이고 "Yard"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Denver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체 속으로 두려움을 안고 걸어나 오게 된 것이다. Lady Jones에게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요청하며 생계를 위한 도움의 손길을 내민 Denver의 시도는 124번지와 이웃 공동체 사이의 화해의 시작이 된다. 즉 그녀는 그 동안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 고립되어진 124번지를 이웃 공동체와 화합시킬 뿐만 아니라, 이웃 공동체로 하여금 상실되었던 그들의 진정한 역할을 되살리게 하는 촉매자가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시도는 현재와 미래에 대해 어떠한 기대와 전망도 없이 살아가는 어머니와 자신에게 소중한 자아 의식을 되찾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들은 그 동안 왜곡되거나 잊혀졌던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깨달음으로써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얻게 된 것이다.

IV. 공동체 구현과 정체성 회복

작가는 작품 속에서 1840년대와 1870년대를 두 개의 역사적 틀로 잡고 있다. 여기서 개개인의 이야기가 풀어지면서 전진하다가 서로 뒤엎히고 다시 시작되는 과정을 통해 결국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합쳐지게 되는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과거의 아픈 기억들과 파괴된 공동체가 어떻게 복원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Beloved에 의해 124번지의 인물들은 자신의 기억을 재인식함으로써 상실된 자아를 되찾아 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Denver가 이웃 공동체를 향해 나아감으로써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공동체와의 유대가 회복되고 화해가 성립되어진다. Denver로부터 124번지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흑인 공동체의 사람들은 각각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그 동안의 침묵과 무관심을 깨기 시작한다.



The news that Janey got hold of she spread among the other colored woman. Sethe's dead daughter, the one whose throat she cut, had come back to fix her. Sethe was worn down, speckled, dying, spinning, changing shapes and generally bedeviled. They fell into three groups: those that believed the worst; those that believed none of it; and those, like Ella, who thought it through. (255)

124번지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은 차차 자신들의 아픈 과거의 기억들과 연결시키며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즉 노예제도라는 특수한 공통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은 저마다의 정신적, 신체적인 파괴와 고통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다. 따라서 124번지의 고통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외부의 도움을 요청한 Denver의 시도는 124번지를 공동

체 안으로 다시 끌어들이는 역할과 더불어 그 동안 침묵해왔던 공동체를 일깨워 공동체의 본래 기능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Denver는 12년 동안 이웃과 접촉을 끊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행동이 가족의 구원에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 Baby Suggs와 Sethe의 오만한 행동으로 인해 공동체는 Denver의 가족을 고립 속에 방치해 두었지만 Denver가 공동체로 걸어 나와 그 동안의 일을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자 이러한 Denver의 노력에 대하여 응답하게 되고, 나아가 Denver의 닫힌 마음을 열어 주게 된다.

Now they opened her mind. Weeding the garden, pulling vegetables, cooking, washing, she plotted what to do and how. The Bodwins were most likely to help since they had done it twice. Once for Baby Suggs and once for her mother. Why not the third generation as well? (252)

마을 여인들 중에서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은 Ella인데, Ella는 과거에 백인의 가정에서 백인 아버지와 아들의 성적 노리개가 된 적이 있는 흑인 여성으로서 노예제도의 고통을 몸소 체험한 여성이다. Ella는 124번지의 유령이 사람을 괴롭히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취한다. Ella는 Sethe의 오만함 때문에 Sethe의 삶에 무관심했으나 이제 더 이상 Sethe의 고통을 방관하지 않는다.

Whatever Sethe had done, Ella didn't like the idea of past errors taking possession of the present . . . The future was sunset; the past something to leave behind. And if it didn't stay behind, well, you might have to stomp it out. (256)

Ella는 Sethe의 과거 경험이 받아들이기에는 엄청난 것이지만 지난 날의

실수가 현재의 Sethe의 생명과 삶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는 바로 노예제도 하에서 비슷한 경험을 치른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Sethe의 경험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Ella와 마을 여인들은 함께 124번지로 향한다. 그들은 기도의 힘으로 Beloved를 쫓아내지 못하자, 흑인들의 언어인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그 노래는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미국으로 실려온 노예들의 입에서 울려 퍼진 노래이다. 또한 Sethe의 어머니와 유모 Nan이 불러준 노래이며, Baby Suggs가 설교하던 Clearing에서 흑인들이 함께 부른 노래이다. 그리고 Six O가 죽어갈 때 부른 노래와 유사하며 Paul D가 Alfred의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지내던 당시 46명의 다른 흑인들과 모든 언어가 차단되자 단결을 위해 불렀던 노래이기도 하다.

이러한 마을 사람들의 노래 소리를 들은 Sethe는 마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떨게 된다. 마을 사람들이 124번지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이러한 모습은 Baby Suggs가 살아 생전에 주관했던 Clearing의 종교 집회가 다시 Sethe의 눈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For Sethe it was as though the Clearing had come to her with all its heat and Simmering leaves, . . . It broke over Sethe and she trembled like the baptized in its wash.(261)

Sethe는 마을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소리를 들으며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되찾게 되며, 그 동안 공동체로부터 이탈되어 단혀있던 마음을 공동체를 향해 열게 된다. 124번지에서 Ella와 마을 사람들이 부른 이 노래는 Sethe를 치유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잊혀진 목소리를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Baby Suggs가 주관한 종교 모임에서 육체적, 정신적인 억압을

춤과 노래로 승화시킨 마을 사람들은 Sethe가 저지른 살해사건 이후, Baby Suggs에게서 등을 돌렸다. 마을 사람들은 Beloved를 물리치기 위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들의 젊은 시절 Baby Suggs의 마당에서 뛰놀던 모습을, Clearing에서 위안과 자신감을 얻었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장면은 Clearing에서의 종교 모임이 다시 재현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왔으며 그 동안 단절되었던 124번지와 Cincinnati 지역 공동체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작가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자기 완성이나 구원에 이를 수 없고 공동체와의 연계 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Nobody in the novel, no adult black person, survives by self-regard, narcissism, selfishness. They took the sense of community for granted.¹⁸⁾

작가 Morrison은 작품의 끝에는 독자들에게 일러주고자 하는 깨달음이 있고, 그것은 바로 공동체를 지향하여 온전한 유대를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Something important has happened; some knowledge is there—the Greek knowledge— What is the epiphany in Greek tragedy. But in addition to that, it's community oriented.¹⁹⁾

한편, Morrison은 과거의 기억이 개인과 공동체의 자아 의식 형성에 어

18) Doreatha Mbalia, *Toni Morrison's Developing Class Consciousness* (Selinsgrove: Susquehanna Univ. P., 1988), p. 108.

19) Danille Taylor-Guthrie,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Jackson: Univ. of Mississippi, P., 1994), p. 177.

떠난 영향을 주는지 작품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작품의 끝 부분에 “그것은 전수해야 할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문장이 자주 반복되어 나온다. 이러한 문장들은 독자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일러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암시한다. 즉 문장들의 울림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이것은 반드시 전수되어야만 하는 이야기이다.”라는 역설적 암시를 가지고 있으며 잊혀짐을 거부하고 오히려 기억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고통스런 과거를 회상의 과정을 통해 바로 인식함으로써 제대로 잊을 수 있으며 건강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the의 경우 아이를 저쪽 세상으로 보내는 것은 노예의 삶이 아닌 다른 세계로 보내는 것으로 흑인 어머니의 절실한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딸 Beloved를 죽였다. 그러나 Sethe의 참혹한 과거의 기억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지워지지 않고 흔적을 남기며 현재의 Sethe의 삶과 자아를 파괴하고 공동체와 미래로부터 그녀를 고립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Beloved에 의해 불완전한 과거의 기억들을 되살리며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함으로써 온전한 기억으로 되돌려 놓게 되며 Denver를 통해서 끊어진 공동체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 속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I was talking about time. It's so hard me to believe in it. Some things go. Pass on. Some things just stay. I use to think it was my memory. You know some things you forget. Other things you never do. But it's not. Places, places are still there. If a house burns down, it's gone, but the place- the picture of it -stays, and not just in my memory, but out there, in the world. What I remember is a picture floating around out there outside my head. I mean even if I don't think it, even if I die, the picture of what I did, or knew of saw is still out there. Right in the place where it happened." (35-36)

Paul D도 가족이 파괴되어진 후 고통스런 감옥 생활과 방랑 생활을 거치면서 한 인간으로서, 한 남성으로서의 자아를 잃어버린다. 그는 다시는 돌이키기가 싫은 기억을 마음에 숨겨 놓고 아무에게도 열어주고자 하지 않는다. 그러나 Beloved를 통해 기억들을 다시 회상함으로써 자아와 남성성을 회복하게 된다.

이와 같이 Morrison은 개인과 공동체 사이의 건강한 유대 관계를 소중히 여겼으며, 과거의 고통스럽고 불완전한 기억들은 반드시 회상을 통해 바로 인식되어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흑인 개인과 공동체의 고통스러운 과거와 불완전한 현재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미래까지 보여 주고자 한다. 순간적이고 번지레한 결과를 낳은 남북 전쟁은 이후에 더욱 심화되는 흑인 공동체에 대한 억압을 보여주고 있다. Paul D의 18년 간의 방랑 생활에서 전쟁 후 지속적인 테러와 차별의 대상이 되어온 흑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또한 Stamp Paid가 강가에서 살해된 채 발견된 흑인 여성의 시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편 노예로서의 경험을 겪은 적이 없는 Denver는 어머니 Sethe의 독백과 할머니 Baby Suggs에게서 들은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자신이 처한 역사적인 상황을 깨달아 성장하게 된다. 특히 Denver는 누구보다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지닌 인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앞으로 싸워 나가야 할 길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알 수 있다.

19세기 말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흑인들에게 가장 최악의 시기라고 표현된다. 이 시기는 노예제도 하의 흑백 관계가 깨어지고 실험적 단계를 거쳐 재정립되는 때였다. 재정립된 흑백 관계는 흑인들의 인종적 열등함을 가설로 하여 세워졌고, 백인의 우월함을 한층 더 강조하는 가장 경직된 형태로 나아갔다. 흑인들은 투표권이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분리되었으며 폭행과 살인의 대상이었다. 경제적으로도 흑인은 백인

들의 착취와 이용의 대상이 되었다.²⁰⁾

한편 이러한 상황은 단지 Denver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노예제를 체험하지 않은 세대를 대표하는 Denver를 통해 노예제 이후와 현대의 흑인 공동체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문제들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에서 Denver는 여기에 필요한 정신적 힘을 그녀의 조상과 공동체에서 발견한다. 작가는 이를 통해 미래를 위한 도약의 원천이 흑인들이 소유한 전통과 역사, 그리고 공동체와의 유대임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다.

Morrison은 각 인물들이 회상을 통해 자신들의 과거를 이야기하며 그 악몽에서 깨어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또한 개인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동체의 기억과 연결시키며, 공동체와의 유대를 회복함으로써 자신의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이 개인의 고통스런 기억이 제대로 인식되고 공동체와의 유대가 회복되었을 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와 합쳐지게는 것이다.



Through the abolition of narrative limits, Morrison does not mock the act of telling but makes new space for lost ancestors, and admits into visible realm a sense of possibility that was at best conjured and rarely lived . . . Morrison seeks a way to realize the essential truth of the past.²¹⁾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의 정체성은 재기억으로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은 역사로부터 생기는 것임을 알 수 있다.²²⁾ Morrison은 지금까지 지배 문

20) 이보형, 『미국 역사와 새 발견』 (서울: 소나무, 1987), p. 139.

21) Eileen Bender, "Repossessing *Uncle Tom's Cabin: Toni Morrison's Beloved*," Bonnie Braendlin ed. *Cultural Power/Cultural Literacy: Selected Papers from the 14th Florida State Univ. conference on Literature and Film*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 1989), p. 140.

22) 曠涖○ 『뿔러브드』-흑인의 역사』 『외국문학』 35 (1993 가을호), 83.

화에 의해 가려진 흑인들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였으며, 흑인들의 진실된 공적인 역사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그것을 읽어내는 독자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적인 앎을 얻어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는 주체가 되도록 요청하고 있다.



V. 결 론

Toni Morrison은 흑인 여성 작가라고 불리우기를 자청하며 이 세상에는 피부색 만큼이나 다양한 삶이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하였다. 여태껏 흑인 문학에서 조차 문제 삼지 않았던 여러 소재들을 과감히 작품에 도입하여 미국 내에서의 흑인 공동체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과 갈등을 새롭게 조명해 보고, 지배문화에 의해 은폐되어 온 진실을 밝혀 보고자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있다. 지배 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착취와 박탈의 모티브들은 흑인들로 하여금 중심에서 소외되어 주변에서 맴도는 존재로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²³⁾ 작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고통과 차별을 받으며 자신의 정체성마저 흔들려 버리는 흑인들에게 “어떻게 온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으며 그녀의 작품을 통해 그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 있다.

Morrison은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재조명하고 온전한 공동체의 유대가 개인의 정체성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흑인 공동체는 노예제도라는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독특한 성격을 형성한다. 우선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를 상실한 흑인들에게 자신들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고 수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흑인 공동체는 집단적 성격이 강하며 상호 유대가 강조된다. 이들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공유하며 서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동시에 서로 따뜻하게 위로하면서 치유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흑인 공동체에서는 여성이 지니는 역할과 위치가 강조된다. 흑인 여성들은 자녀들에게 인간성을 심어주는 모성을 지니고 있으며, 동시에 선조의 전통과 역사를 후세에게 전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이는 아버지 없이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어머

23)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 (1992년 여름호), 12.

니의 존재는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매우 소중함을 보여주고 있다.

작품에서는 흑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체와의 유대로 발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Morrison은 흑인 문학의 전통을 이어받아 그녀의 작품 속에서 노래와 춤, 종교 집회 등을 통해 흑인의 문화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공동체를 그리고 있다. 마치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공동체로부터 문화와 역사를 전수 받고, 개인이 공동체와 건전한 관계를 맺을 때 개인의 온전한 생존이 가능함을 강조하고 있다. 작품 *Beloved*에서는 124번지가 흑인 공동체에서 완전히 이탈되어서 다시 공동체와 화해를 이루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흑인들의 온전한 삶을 위해서는 개인이 공동체로부터 그 힘을 찾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이송되어 미국으로 온 노예 첫 세대들은 고통스러운 노예제도 하에서도 후손들에게 자신들이 소유한 전통과 문화를 전수하고자 노력하였다. Baby Suggs를 비롯하여 Sethe의 친어머니, 유모 Nan 등을 포함하는 어머니들은 바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임을 작품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흑인 자신에 대한 긍지를 갖을 것과 조상의 뿌리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했으며 언제나 공동체간의 온전한 결속을 강조하였다.

노예제도 하에 태어나 노예로서 성장하고 남북전쟁과 노예 해방령이란 과도기를 거치며 한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하고 방황하는 인물로는 Sethe와 Paul D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가장 혹독한 노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도 결별된 생활을 하게 된다. Sethe는 딸을 죽인 것에 대한 죄책감에 이웃과 고립된 생활을 하는데, 이것은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시켜 근본적으로 자신을 파괴하고자 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Paul D가 과거의 치욕스러운 경험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두고 누구에게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것 역시 고통스런 과거를 제대로

치유 받기를 거부하는 행동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과거의 삶이 이들의 현재와 미래를 구속하게 되는데, 조상과 과거에 대한 기억을 재인식하게 만드는 Beloved를 통해 차차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그리고 나아가 공동체와의 화해를 시도하는 Denver의 도움으로 공동체와 온전한 유대를 이루게 된다.

노예 제도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를 대표하는 Denver는 어머니에 의해 의도적으로 과거와 조상에 대한 기억에서 차단되어지고, 또한 공동체와도 결별된 생활을 해 온 소녀이다. 나태하고 미래에 대한 꿈조차 없이 살아온 Denver는 Beloved의 파괴적인 사랑에서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며 차차 밖으로 나아가 공동체와의 화해를 시작하게 되는 인물이다. 즉 124번지는 Beloved에 의해 과거의 기억과 화해를, Denver에 의해 공동체와의 화해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들은 중보자로서 파괴되어진 개인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딸 Denver의 시도로 이웃과 재연대를 이루게 된 124번지는 더 이상 유령의 출몰이나 죽음이 깃든 고립되고 정지된 장소가 아니다. 이러한 사건은 124번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그곳을 둘러싼 이웃 공동체로 하여금 본래의 기능을 재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치유하는 그들의 힘을 되살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이러한 Morrison의 작품이 흑인이라는 특정 집단만을 다루고 있어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지 않은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Morrison은 다음과 같은 고백에서 그녀가 흑인이라는 특정한 대상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인류 전체로 그 이야기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I never asked Tolstoy to write for me, a little colored girl
in Lorain, Ohio. I never asked Joyce not to mention

Catholicism of the world of Dublin. Never . . . Faulkner wrote what I suppose could be called regional literature and had it publish all over the world. That is what I wish to do.²⁴⁾

그녀의 목소리는 백인보다는 흑인, 남성보다는 여성을 향한 것이지만 중국에 가서는 한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 전하는 목소리로 확장되고 있다. 그녀는 여러 작품들을 통하여 흑인 작가들의 다섯 단계 글쓰기--처음에는 저항의 열기 속에서 시작하여, 개인의 정체성 추구에 집중하고, 자식 종족의 문화를 탐색코자 하며, 그것을 세련된 기교에 담아보려 하면서, 중국에는 세계를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비전으로 확대되는 글쓰기--중 마지막 단계를 획득한 작가로 높이 평가 받고 있다.²⁵⁾

Morrison은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 흑인들이 지니고 있는 삶의 해체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정체성 상실로 보고 있다. 작품 *Beloved*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개인의 불완전한 과거의 기억들을 회상하여 바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미래도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나아가 개인과 공동체와의 온전한 유대를 회복하여 공동체의 전통과 문화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발견하고 상호 치유의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진정한 개인의 정체성이 획득되어짐을 보여주고 있다.

24) Thomas LeClair, "The Language Must not Sweat." *The New Republic* 21 (March 1981), 25-26.

25) Angela Wigan, "Native Daughter," *Time* (12 September 1977), 76.

참 고 문 헌

I. TEXT:

Morrison, Toni. *Beloved*. New York: A Plume Book, 1988.

II. REFERENCES:

- Angelo, Bonnie. "The Pain of Being Black." *Time* 22 (May 1989).
- Bender, Eileen. "Repossessing *Uncle Tom's Cabin*: Toni Morrison's *Beloved*." Ed. Bonnie Braendlin *Cultural Power/Cultural Literacy: Selected papers from the 14th Florida State Univ. conference on Literature and Film*. Gainesville: Univ. of Florida P., 1989.
-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s on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 _____. *Black Women novelists: The Development of a Tradition 1892-1976*. Westport, Conn: Greenwood P., 1980.
- Davis, Christina.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Presence Africain* 145(1988).
- Lawrence, Davis. "Fleshly Ghosts and Ghostly Flesh : The Word and The body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9/2(1991).

- LeClair, Thomas. "The Language Must not Sweat." *The New Republic* 21(March 1981).
- Mbalia, Doreatha. *Toni Morrison's Developing Class Consciousness*. Selinsgrove: Susquehanna Univ. P., 1988.
- Mckay, Nellie.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ontemporary Literature* 24(winter 1983).
- Morrison, Toni. "Rootedness: Ancestor as The Foundation." *Black Women Writers(1950-1980): A Critical Evaluation*. Ed. Mari Evans. New York: Doubleday, Anchor P., 1984.
- Rigney, Barbara Hill. *The Voices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niv. P., 1991.
- Spillers, Hortense J. "Mama's Baby, Papa's Maybe: An American grammar Book," *Diacritics* (Summer 1987).
- Taylor-Guthrie, Danille.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Jackson: Univ. of Mississippi P., 1994.
- Wilfred D. Samuels and Cleonora, Hun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 1990.
- Wigan, Angela. "Native Daughter." *Time* 12(September 1977).
- Willis, Susan. *Specifying: Black Women Writing The American Experience*. Milwaukee: Wisconsin Univ. P., 1987.
- 김성곤. 「탈식민주의 시대의 문학」 『외국문학』 31 (1992년 여름호)
- 나영균. 「『내 사랑한 자』 -흑인의 역사」 『외국문학』 35 (1993 가을호)
- 이보형. 『미국 역사와 새 발견』. 서울: 소나무, 1987.

<Abstract>

**A Study of Toni Morrison's *Beloved*:
The Search for Identity through Community**

Lee, Myoung-sook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Byun, Jong-Min

Morrison's nobles are utterly related with black people and based on black people's life. Especially, the recovery of the lost identity of the black is the utmost concern in her works. She feels that the emancipation of black people can only be realized within the contexts of black culture. She points out that the recovery of the lost identity can be completed when the effort of individuals is conducted through the union of the communit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Morrison's recovery of black identity through community in *Beloved*. In chapter II, the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black community are discussed. The chapter III deals with the mutual actions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y in order to recover identity. And chapter IV describes the meaning of the community's recovery and challenge for the black

people's future.

The black community has some characteristics throughout slavery. First, it has the role to deliver the ancestor's culture and history to the next generation. Second, it's group-centered rather than parted. Each black community has owned the same history. So black people can be cured and "survive whole" ultimately in the community. Third, the role and position of female are emphasized in the black community. Female has motherhood that gives identity and traditional culture to her children.

There are three kinds of generation in *Beloved*. The first generation that had the experiences of Middle passage and slavery. They try to keep and hand over their ancestor's traditional culture. The second generation that was born in slavery and experienced crashing of identity. This generation recovers identity through the way of "rememory" and "harmony with the community". The last generation helps others to recover their uncomplete memory and plays the role of arbitration between individuals and community.

Blacks still have hard time living in America, which is supposedly the country of freedom and equality. In *Beloved*, Morrison shows the black ancestors' wisdom and teaches the importance of the community's healing power. This power will cure many people and guide them to the road of future.

In conclusion, Toni Morrison seeks for the source of power for the modern black people to survive wholly in the traditional culture that contains the history of the black people's resistance and survival.